

모범생 필, 파워까지 키웠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브렛 필에게 ‘모범생’이라는 단어만큼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없는 것 같다.

그라운드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흠 잡을 게 없는 모범적인 선수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타이거즈에서의 세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필.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필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있었다. 친구 같은 동료들과 팀 시스템도 잘 알고 있기에 심적인 여유가 커졌다. 그럼에도, 필에게는 만만치 않은 스프링 캠프 여정이 다.

취재진의 귀국 날짜를 묻던 필은 부러운 표정으로 “나도 데려가 주라”는 농담을 했었다. “금요일 귀국”이라는 말에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나? 요일도 잊고 산다”고 속스럽게 웃었다.

미국의 스프링캠프는 2월 중순께 시작된다. 반면 한국 팀들은 1월 중순이면 해외로 나가 시즌 준비에 나선다. 시즌이 끝난 후 고향에 머물던 필은 선수단이 미국 애리조나로 건너오자 곧장 캠프로 이동해 훈련을 시작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을 치르기 위해 1박2일의 이동을 하기도 했다.

미국 야구 시스템에 익숙한 필에게는 길고 험난한 캠프, 2일 훈련을 끝으로 길었던 캠프의 공식 일정은 종료됐다. 캠프의 긴 여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문제없다’는 모범생 필이다.

그는 “일찍 캠프를 시작했지만 경기 출전하는 시간도 배려해주시고 컨디션은 괜찮다”고 말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자신의 자리인 1루가 아니라 2루에서 실전을 치렀지만 이 역시 ‘문제없다’는 다재다능한 필이다. 어느 자리가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제 2의 고향인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필은 ‘늘 최선을 다하는 선수, 포기하지 않

KIA 캠프 공식 일정 종료

웨이트 집중하며 시즌 준비

포기 않는 선수로 기억되고파

는 선수’를 목표로 새 시즌을 맞겠다는 각오다.

필은 “브렛 필하면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팬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다. 또 포기하지 않는 선수로도 기억되고 싶다”며 “캠프에서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 웨이트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시즌을 준비했다. 세 번째 시즌이라서 상대 투수들에 대한 파악도 됐고 익숙하다. 물론 그만큼 상대도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시즌을 그려가고 있는 그는 새로운 동료와의 2016년이 기대된다. 올 시즌 KIA는 브렛 필과 함께 헥터 노에시, 지크 스프루일 두 신인으로 외국인 선수 3인방을 구성했다.

필은 “한국 생활에 대한 것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가면 두 사람이 새로운 생활과 리그에 잘 적응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웨이트를 통해 파워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필은 올 시즌 나지완, 이범호 등의 힘있는 동료들과 만들어 갈 화끈한 공격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시즌 중심타자들의 부진 속에 많은 견제를 받았던 필이지만 “좋은 선수들이다. 이범호는 좋은 리더이자 좋은 타자이다. 나지완도 준비를 잘했고 좋은 선수다. 나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경기에서는 이들이 좋은 활약을 해줄 것이다”며 뜨거운 2016시즌을 그려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KIA 타이거즈의 ‘효자 외국인 선수’ 브렛 필이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일본 오키나와 컨구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맞아도 씹씩하게 던지겠다”

‘아기 호랑이’ 김현준
대만 캠프 가장 좋은 성적표
체중 불려 스피드 늘릴 것



대만 캠프에서 꿈을 키운 ‘아기 호랑이’ 김현준이다.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 캠프 본진을 꾸린 KIA는 대만에도 퓨처스리그 선수단 캠프를 차렸다. 루키 투수들의 무대는 오키나와가 아니라 대만이였다. 아직 다 여물지 않은 어린 투수들이 오버 페이스를 하지 않도록 대만 캠프에서 차근차근 프로 데뷔를 준비시킨 것이다.

입단 동기인 포수 신범수, 내야수 최원준, 외야수 이진영이 오키나와에서 주목을 받는 동안 우선 지명으로 가장 먼저 KIA 유니폼을 입은 투수 김현준은 대만 캠프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다.

이번 캠프 연습경기에서 김현준은 투수 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4경기에 나와 16이닝을 소화한 그는 7피안타(1피홈런) 7볼넷 8탈삼진 3실점(2자책)으로 1.1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두 경기에서는 승리투수가 됐다.

퓨처스 선수단과의 경기였지만 이제 막 프로 선수가 된 ‘아기 호랑이’에게는 자신감을 얻기에는 충분한 성적이다.

김현준은 “체구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코치님이 슬라이더가 좋아졌다고 말해주었다. 앞으로 체중을 늘리고 힘을 붙여서 스피드도 늘리겠다”며 “앞으로도 씹씩하게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로에서의 첫 스프링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김현준은 1군 무대로 가기 위한 길도 배웠다. 김현준은 “프로 선수들을 상대해보니 확실히 힘이 다르다. 또 조금만 높으면 바로 안타나 장타로 연결된다. 실투를 놓치지 않는다. 씹씩하게 빠르게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밀하게 공을 던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아직은 배우고 가다 들어가야 할 게 많다. 맞으면서 많이 배우고 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키나와 캠프단은 3일 귀국길에 오르고, 대만 캠프단은 4일 광주로 복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치어리더 공모

KIA 타이거즈가 치어리더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치어리더 공개 모집과 오디션은 대한치어리더협회 광주시지부와 함께 진행하며 댄스에 소질이 있고 끼와 열정이 넘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관심 있는 사람은 구단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응모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KIA와 대한치어리더협회 광주시지부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두

명을 선발할 방침이며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2016시즌 KIA 타이거즈 응원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대한치어리더협회 광주시지부 단위 자격도 얻게 된다.

최종 합격자와 오디션 우수참가자는 오는 26~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시범경기 때 응원단장에 올라 팬들 앞에서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한편 치어리더 공개 모집은 ‘야구(baseball)’와 ‘문화(culture)’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KIA의 ‘베이스컬(Basecul)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현수 ‘MLB 적응중’

140km대 공략 못한 채 시범경기 3타수 무안타

벽 쇼월터 감독 “새로운 경험해야... 오늘이 출발점”

한국프로야구에서 10년을 뒀 ‘타격기

계’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에게 도 첫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출전은 부담스러웠다.

김현수는 2일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챔피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5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1회와 3회 김현수는 우완 투수와 상대했고 패스트볼 계열의 공을 공략하다 범타에 그쳤다. 1회 윌리엄스 페레스와 3회 대니 브라와는 빠른 공으로 김현수를 상대했다. 김현수는 90마일대 초반, 시속 140km 중후반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해 좌익수 뜬공과 1루 땅볼에 그쳤다.

경기 뒤 그는 미국 스포츠채널 ESPN과 인터뷰에서 “다소 긴장했다”며 “타석에서 ‘상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까’

만 생각했다.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ESPN은 “김현수는 이미 클럽하우스 문화에 적응했다. 오늘 첫 시범경기에서는 ‘타석에서 갈 길이 꽤 멀다’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벽 쇼월터 감독은 “오늘 경기 전 김현수와 한국프로야구 스프링캠프에 대해 얘기했다. 한국은 1월에 이미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김현수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오늘은 그 출발점”이라고 김현수를 두둔했다.

일단 김현수는 사령탑의 깊은 신뢰 속에 시범경기를 치를 전망이다.

김현수는 “팀에서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건 기쁘다”이라며 “지금 부족해 보이는 점은 경기를 하면서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오늘 FA컵 1R 대진 추첨

K3리그 하위 8개 팀·대학 상위 10개 팀 등 28개 팀 출전

2016 KEB 하나은행 FA컵 1라운드 대진 추첨이 3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FA컵은 지난해 79개 팀에서 4개 팀이 늘어난 총 83개 팀이 참가한다. 지난 22일 대한축구협회와 통합한 기존 생활축구연합회 소속 참가팀은 지난해 8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늘어났다.

1라운드는 12일과 13일에 열리며 2015년 성적을 기준으로 K3리그 하위 8개 팀과 대학 상위 10개 팀, 생활축구 상위 10개 팀 등 28개 팀이 출전한다. K리그 클럽 소속팀은 4라운드(32강전)부터 참가한다.

축구협회는 ‘2026년까지 K리그 1부

에서 6부 리그까지 승강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 FA컵에 참가하는 생활축구 10개 팀은 디비전 시스템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FA컵 1라운드에 참가하는 생활축구 팀은 사내 동호회 팀으로 시작해 지난해 3라운드까지 진출한 넥센타이어,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 SMC엔지니어링, 울산 세종공업 직원들로 구성된 울산 세종 축구단이 있다.

또한 중소병원 축구대회 3연패를 한 목포기독병원을 비롯해 이전 SK 하이닉스, 평택 LG전자, 광주 삼성전자, 대웅바이오, 후지제록스, 제주시청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5연승 남자 탁구 세계선수권 8강 직행

한국 남자 탁구가 세계단체전탁구선수권에서 5연승을 달리며 조 1위로 8강에 직행했다.

남자 단체는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위타 사얌람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마지막 조별리그에서 난적 홍콩을 3-1로 꺾었다.

전날까지 4연승을 달린 대표팀은 이날 4번째 단식에 나선 ‘만형’ 주세혁(삼성생명)이 홍콩 선수를 3-1로 물리치고 조별리그 전승을 완성했다.

대표팀은 앞서 크로아티아(3-2), 이탈리아(3-0), 러시아(3-0), 루마니아(3-2)를 차례로 제압한 바 있다. 조 1위를 기록한 대표팀은 8강에 올라 메달 전망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각 조 1위는 8강에 직행하고, 2-3위는 다시 맞붙어 4팀이 8강에 오른다.

한편, 여자 단체 대표팀은 이날 마지막 조별리그에서 홍콩에 1-3으로 아쉽게 무릎을 꿇어 D조 2위(4승1패)로 8강 직행에 실패했다.

12강에 나서는 여자 대표팀은 3일 각 조 2-3위팀간 대결에서 승리하면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여자 단체는 미국(3-1), 러시아(3-0), 스웨덴(3-0), 오스트리아(3-1)를 차례로 꺾고 4연승을 달렸으나, 이번 대회 첫 패배를 기록했다.

/연합뉴스